

전남도, 총허용어획량 시행...어업인 소득·자원 보호 나선다

내년 6월부터 오징어·참조기 등 7개 어종 10개 업종 대상
수산자원보호 준수 어선에 t당 최대 75만원 직불금 지원도

전남도가 이달부터 바다 생태계 보존과 어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시행한다.

전남도는 28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참여하는 연안어업 6개 단체와 TAC에 적용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시행계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TAC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해수부는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TAC 전면 확대와 기존 어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TAC를 준비, 연소, 정착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준비 단계에서는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연소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받아 조업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TAC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TAC에 새롭게 추가된 어종(망치고등어·기림가자미)과 어업에는 연소 단계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현재 준비 단계인 꽃게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 적용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여근해어선 TAC의 경우 지역별로 어획량에 차등을 두는데 전남도의 경우 오징어, 참돔, 갈치, 참조기, 삼치, 키조개, 개조개 등 7개 어종에 10개 업종(914척)이 TAC 대상이다. 총 2만9839t 규모다.

어종별로 보면 오징어 7645t, 갈치 6452t, 참조기 5158t, 삼치 8893t, 참돔 428t, 키조개 1076t, 개조개 187t 등이다. 어획증명보고와 자율휴어기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한 어선에는 최대 t당 75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근해어업 TAC 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총어획 실적과 실조업 어선 척수 및 t수 가중치 등을 적용해 시군별 배분량을 배정 후, 시군에서는 세부 어선별로 TAC 배정량을 할당했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연안어업 TAC 제도도 시행한다. 연안어업 TAC는 근해어업과 달리 시범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참여 어가에게 직불금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올해 여수새우조망연합회 등 도내 6개 연안단체(141척)를 대상으로 연안어업 TAC를 적용한다. TAC 규모는 1만6942t으로 새우류, 아귀, 민어 등 15개 어종 모두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연안어업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도 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8일 광주시 서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열린 '광주 RE100 추진본부 현판 제막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고상연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원장, 기업 대표 등 내빈들이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RE100추진본부 출범...에너지전환 본격화

재생에너지 전환·공공주도 도심형 태양광 확산 등 역할

광주형 RE100 추진(7월 17일자 광주일보 1·3면)을 위해 광주시가 '광주RE100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했다. 'RE100 도시 광주'를 향한 광주형 에너지전환을 본격화한 것이다.

28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이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광주RE100 추진본부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추고, 2045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필순

광주시의원, 고상연 한국기후에너지진흥원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장, 김성진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장승찬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장 등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RE100 도시 광주'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주RE100 추진본부'의 주요 업무는 정부 RE100 산단 조성 추진, 영농형 태양광 연계 RE100 기업 지원, 분산특구 지정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주도 도심형 태양광 확산 등이다.

내륙도시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한계가 있는 광주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RE100산단 조성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날 추진본부 제막식과 함께 'RE100 예비기업 선언식'도 개최했다. 선언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기업 10곳이 RE100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들 기업은 태양광 2.5MW와 풍력 105kW를 활용해 2026년 말까지 1곳(에어스퀘어)은 RE100을, 나머지 9곳은 RE30(재생에너지 사용량 평균이 산업용의 30% 달성)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산사태 2차 피해 막는다”...전남도, 응급복구

순천·광양 등 72개소 신속 조치

전남도가 28일 “극한호우로 도내 곳곳에 발생한 산사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호우로 순천, 광양, 담양, 보성, 구례 등 72개소에 12ha 규모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 도는 지난 25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산간 지역에 대한추가 조사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산사태는 임도, 작업로, 급경사지 등지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인위적인 개발지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개발지에 대한 사전 예찰과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시

까지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다.

극한호우로 인한 도내 산림 분야 피해 규모는 12개 시군에 걸쳐 총 3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추가 조사를 마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사업과 산사태 예측정보에 따른 주민 대피 명령이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호우 피해 정보를 입력한 후 오는 8월 2일까지 산림청, 시군과 함께 피해 현장 확인을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해대책비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12곳 기·종점 노면표시 등

광주시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112곳에 대한 개선작업을 완료했다.

28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올해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입,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514개소 중 112개소의 정비를 마쳤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종점 노면표시’를 명문화함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정비와 함께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는 83개소를 정비했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319개소에 대해서도 매년 단계적으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나광국 “전남산단 근로자에 아침밥 지원해야”

전남도의원 5분 발언

전남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전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나광국(민주·무안2) 전남도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광주시와 전북 완주군, 경남 밀양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산단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산단 근로자 아침밥 지원사업이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업무 효율성 향상에 따른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전남도가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 아침식사 지원에서 전국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낸 것처럼, 이제는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사업에서도 전국을 선도하는 롤모델이 돼야 한다”며 “도청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한 사람의 보험가입이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수
http://X&3@%M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생명보험협회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Accident Insurance Association

IGA보험GA협회
IGA Insurance Association